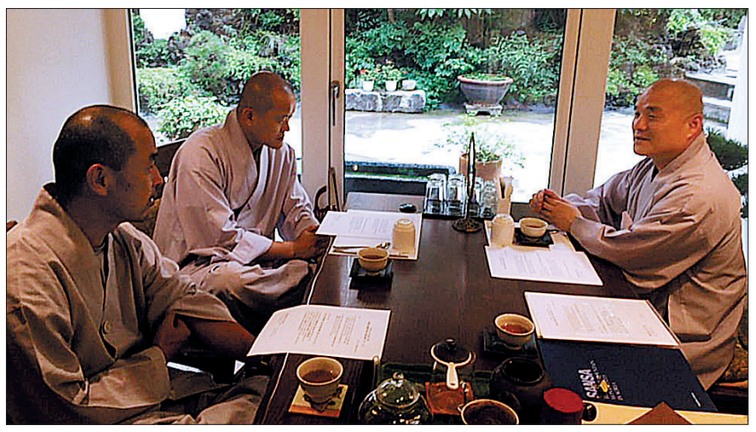
공공사업 영역, 포교종책 첫 접근 눈길

조계종 포교원 7월 26일 부산서 종책간담회

교육 · 복지 · 환경 등 포교 접목
11월 중 솔루션 보고서 발간
개별사찰 사례 취합해 연구


26일 오후 진행된 지역사찰 사례 취합 간담회 모습.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에 대한 종단차원의 첫 접근이 눈길을 끈다. 불교계 기관 ·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종책차원에서 사회참여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26일 부산시청에서 '공공영역 참여 포교 솔루션'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정관계자를 비롯해 사회참여형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찰이 참여해 사례를 소개했다.

포교원의 이번 종책간담회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 복지, 의료, 환경 등 사회공공영역의 종교계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포교원은 광역자치단체 2곳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3곳 등 표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포교전략과 방법론으로서 〈공공영역 참여 솔루션〉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이상봉 포교원 포교정책팀장은 "현대는 민관협력시대로 지역에서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생활 전반에 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포교 차원에서 개별사찰의 참여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사례를 먼저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교원에서 파악한 정부부처별 공공영역 민간단체 지원 사례는 △문광부-종교문화활동지원, 종교문화기반구축, 한류대중문화 육성 △통일부-민간통일운동지원, 남북사회문화교류 △행정안전부-취약계층, 안전사회통합, 시민의식, 자원절약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해외한국학 연구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사회통합 △보건복지부-아동시설지원, 방과후활동지원, 장애인복지, 노숙인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수목장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성장기반 확충사업 등이다.

불교계에서는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이 서울시와 자살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교여성개발원이 행정안전부 비영리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범수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은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는 사회 요구에 따라 종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3년 이상의 사업 신뢰성이 기반되기에 준비과정이 치밀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에도 어린이 청소년 행사 그대로

파라미타 연합캠프 7월 30일, 불교스카우트 잼버리 8월 2일

무더위에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불교계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제21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7월 30일 입재한데 이어 8월 1일 회향했다.

대구 동화사 등지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13개 지역협회의 청소년 대표 및 지도자 500여 명이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 즐기러 가즈아'를 캐치프레이즈로 함께 모여 무더위를 극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매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심신과 호연지기를 키우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위해서 전국연합캠프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이번 전국연합캠프는 '한 여름밤의 축제', '간송미술전 관람', '대구 근대골목 투어', '대구 랜드마크 이월드 체험', '음악놀이축제', '백일장', '동화사 순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불교스카우트연맹은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패트롤잼버리에 참여했다.

이번 잼버리에는 45개국 65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모인다. 캠프서는 곰돌이밧줄놀이, 곰돌이 활강, 프리스비골프, 헌터×헌터(새총쏘기), 앵그리버드, 기능장빌리지, GDV(지구촌개발프로그램), 아마추어무선 HAM, 호랑이 발자국, 캠핑안전스쿨, 개척물만들기, 체험오리엔티어링 등 체험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포교원은 잼버리장에 불교관을 개설하고 24색 합장주 만들기, 태극부채꾸미기, 아침예불, 일요법회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이젠 나도 '글로벌 에코리더'"

고양시 덕양복지관, 11월까지 학교연계 환경교육

친환경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청소년 '에코리더십' 환경교육이 시행된다.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은 고양시 에코교육시티 환경조성사업 일환으로 '2018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을 11월까지 운영한다. 2년차인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체험학습 및 수행과제 등 교육 특강을 학교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은 상반기 서정초 5학년 110명(5월 18~6월 1일), 소만초 3학년 76명(6월 15~29일) · 1학년 80명(7월 3~19일)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물 순환과정 실험 △하천 맑히는 EM흙공 만들기 △지렁이 관찰 수업 △우유팩 팽이 만들기 실습 등이 진행됐다.


2018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 학생들의 '흙공 만들기' 체험 모습.

상반기 참여 학생들은 "글로벌 에코리더로서 성사천 수질검사를 통해 하천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기차로 즐기는 템플스테이 · 강원도 여행

불교문화사업단-코레일, 8월 11~12일 일정 기획

전국적인 '불가마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피서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강원도 계곡과 바다, 사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코레일관광개발(대표 방창훈)은 8월 휴가철을 맞아 공동 기획한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를 8월 11~12일 선보인다.

여행 첫날인 11일에는 서울역서 KTX를 타고 출발, 평창역에 도착하면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묵호항서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자유관광을 한다.

이후 동해 삼화사로 이동해 △사물체험 △소원 담은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추암 촛대바위 일출보기 △바닷가 산책 △무릉계곡 명소 탐방 등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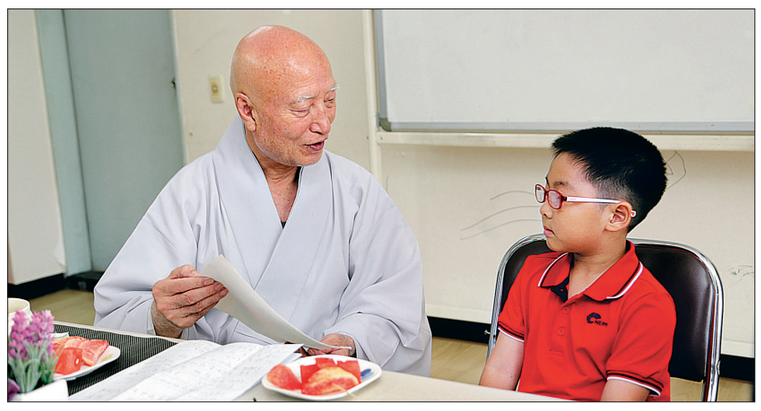
12일에는 삼척중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5000원)이 제공된다. 삼척중앙시장을 비롯해 관동팔경 중 제1경인 죽서루 자유관광이 진행되며, 삼척해변을 둘러본 뒤 바다열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이동한다.

모든 일정이 끝나면 강릉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으로 돌아온다.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이번이 6번째 여행이다. 지난 봄부터 하동 쌍계사, 고창 선운사, 예산 수덕사, 광주 무각사, 순천 송광사에서 1박2일 또는 당일여행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사업단은 9월과 10월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올 여름, 해외보다 멋진 우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국내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관광자원과 템플스테이를 연계해 다양한 전통문화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차 타고 떠나는 템플스테이' 상세한 정보와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병마 굴하지 않고 늘 씩씩하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설정(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지선)를 7월 25일 방문,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대표 박해룡(8 · 소아당뇨 1형) 환우를 만나 치료비 총 1억5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치료비는 총 17명 대상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지원 수습기자

포교사단 서울 10대단장 선거 치러질까?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제10대 단장 선거가 8월 14일 치러진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8월 14일 제10대 서울지역단 단장 및 감사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8월 6일까지로 입후보자는 포교사단 지역단 단장 및 감사 입후보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6개월 이전 임명된 운영위원으로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무국에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제10대 단장 선거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된 선거가 지역단 내 절차 문제로 연기됐었기 때문이다.

포교사단 관계자는 "서울지역 포교전법을 총괄하는 지역단의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바른법연구원 제7회 금강경 수련회

8월 4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서

금강경 독경 수행모임 바른법연구원(이사장 김원수)은 8월 4일 원주 박경리 토지문화관 대강당에서 제7회 금강경연수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난제들을 금강경의 지혜로 풀어내는 분임토의와 금강경 독송, 선지식과의 대화, 금강경 세미나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의학계 대석학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의 '실생활에서의 여시관' 강연을 시작으로 대덕화 포시즌 리빙데코 대표의 '문수보살 서원기도' 수행발표, 성현사 주지 원행 스님의 진행으로 산사음악회 등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